

종합

新年辭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 한해가 저물고 대망의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지역민의 마음은 밝지 못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다시 전화(戰火)의 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안보에 대한 불안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탓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을 담보로 하는 전쟁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없어야 한다.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새해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대치 상황의 극복이다.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안보태세의 획기적 강화와 병행해 정치·외교적 해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남북 간의 끝없는 대결은 양쪽을 함께 희생시키고 동북아 전체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긴장을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하루빨리 본격화해

야 한다. 특히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주권을 잃은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위협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을 피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극화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지역 편중이나 배제 정책은 지역간 갈등만 키우는 망국병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이야말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는 지름길임을 새겨야 한다.

신묘년 한해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2 여수박람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2015 광주하계유

다. 그렇다고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없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무게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올 한해를 또다시 그저 그런 식으로 보낸다면 광주·전남은 그 지긋지긋한 '낙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

주요사업에 무기력하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해선 2012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강력한 리더십도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양 단체장 간의 상생의 지혜도 요구된다.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협력과 공동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며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광주공항 이전문제는 강 시장과 박 지사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광주일보도 전쟁의 폐허 속에 태어나 지역민과 더불어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 혁명의 함성에 지역민과 하나 된 기억을 나이테에 새기며 내년에만 창사 60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올해가 광주·전남이 상생을 통해 힘찬 도약을 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이다.

지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지난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파·계급·지역간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사회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듯한 양상이다. 집권 하반기를 맞아 '관리 단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과 친(親) 서민, 공정한 사회를 말미 아닌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니버시아드, 경전선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상리공생(相利共生) 등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의 성과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역의 국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과 차별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

역민이 한마음이 돼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지역사회 역량의 총체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치지형의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관단심으로 밀어준 민주당이 지역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이나"는 밑바닥 지역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지금처럼 지역

“도청 별관문제 조기 매듭 문화전당 완공 힘 모으자”

강운태 시장 담화문 발표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매듭짓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완공하는 데 지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10인 대책위원회에 이어 광주시가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옛 도청 별관 보존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담화문에는 랜드마크 논란과 옛 도청 별관 보존 마찰 등으로 완공 기한이 4년 연장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 없이 국책사업이자 지역 중대현안인 전당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호소가 담겼다.

강 시장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고 원형 보존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특히 본관과 별관이 분리된 형태로 보존되는 점과 별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점도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며 "그러나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5·18 사적지의 보존과 애초 설계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견해들을 녹여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세부 설계과정에서 옛 도청 별관 중 원형 보존되는 30m를 제외한 24m의 골격을 복원하는 강구조물의 소재 선택 및 디자인, 본관과의 구조물 연결방안, 보존되는 별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추가 협의 및 의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본관과 별관의 강구조물 연결은 설계자의 수정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보존되는 별관 활용은 상주(常住) 방식이 아닌 일시 방문이나 관광지 형태로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과제를 논의하는데 시도민대책위는 물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012년 부분개관, 2014년 완전 개관 등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단체로 구성된 시도민대책위도 옛 도청 별관 갈등 속에서 원형 보존의 원칙을 강조하고 정부안을 수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논의과정에 참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장·지사 新年辭

“행복한 광주공동체 조성 최우선”

강운태 광주시장



올해는 민선 5기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한 힘찬 비상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심재생사업과 균형발전을 통해 주거와 일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시민행복 창조도시'의 모범을 창출하겠습니다.

또,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인권신장을 통한 UN인

권도시로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이제 분명히 도약하고 비상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광주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소명의식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200만 회복...잘사는 전남 매진”

박준영 전남지사



지난해 우리는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힘찬 도전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부분별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도민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 전남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정목표를 크게 3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3농 정책을 통해 농·수·축산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유치

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4대 국제행사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인구 200만 회복 기반을 구축하고 잘사는 전남 건설을 위한 일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전남의 미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후손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갖고 꿈을 일구면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의로운 땅에 훈훈한 정과 희망을 담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소설-정영호 '달의 꽃'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 시-강혜원 '어떤 소믈리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 동화-안수자 '귓속에 사는 무당거미' <광주시 북구 연제동>

금호고속 새 노조 2차 파업 돌입

4일까지... 시외버스 일부 운행 차질 시민 불편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가 2차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광주분부와 금호고속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부터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8~20일 사흘간의 파업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금호고속지회는 "지난달 25일 예

고됐던 파업까지 유보하며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재차 촉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1차 때보다 강도를 높여 오는 4일까지 6일간 2차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금호고속은 직행버스 433대 중 30대가 멈춰섰다. 운행회수도 하루 900회 중 52회가 줄었다. 사측은 광주지역 운전원 630명 가

운데 1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지난 파업과 마찬가지로 전남 이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에는 영향이 없고, 멈춰선 직행버스 대신 전세버스 투입해 운행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고속 노사는 복수노조 허용 여부를 놓고 고소·고발과 폭력 사태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 새해 새소망

2011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도 희망차고 새로운 한해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K (주)한국스치로폴 임직원 일동

